

통산부,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항공우주산업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지난 27일 우리협회 9층 회의실에서 정부·산·학·연 등 항공우주 관계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되었다.

지난 7월3일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에서 기본계획을 금년 내에 수립하기로 하였고, 그동안 관계부처·학회·연구계 등으로 실무작업반(반장:통산부 기초공업국장)을 구성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여왔다.

동 기본계획(안)은 2015년까지 항공산업 매출액 100억불, 수출 50억불 달성으로 세계 10대 선진항공기산업국으로 진입 할 목표를 갖고 추진하게되며, 우주산업은 매출액 30억불 규모를 달성하여 세계

10위권 우주국가로 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동 산업은 앞으로 연구개발 체계 정비, 기술개발 인력공급의 확대, 항공우주분야의 기술개발 하부구조 구축, 전문·계열화 적극 추진으로 효율적인 생산체제를 확립하는 등 동 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항공우주산업의 VISION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개최된 이번 공청회에서는 통산부가 기본계획(안)수립 추진현황 및 주요골자를 설명하고 패널의 검토의견 발표 후 전체토의에서 여러 의견이 개진되었다.

앞으로 통산부는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을 반영한 기본계획(안)을 「항공우주산업개발운영위원회」(위원장:통산부장관)와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위원장:국무총리)에 상정, 의결하여 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올해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대한항공 대형수송헬기정비사업 수주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군과 미군에서 CH-47(치누크) 대형 수송헬기에 대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 이에 따라 동 사는 소형부터 대형헬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헬기를 정비하는 종합 헬기정비업체로 자리잡게 됐다.

CH-47헬기는 미국 보잉사가 제작한 44인승급 대형헬기로 한국군에서는 지난 88년부터 도입하기 시작

해 현재 20여대를 운용중이다. 한국군은 도입후 10년이 경과한 치누크 헬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 연말부터 연차적으로 20여대를 모두 정비한다. 대한항공은 이 정비업무를 도맡아 주로 장착물의완전 분해 수리, 성능점검, 시험비행 등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맡는데 한 대당 6개월이 걸린다.

한편 대한항공은 주한미군이 최근 실시한 CH-47 수송헬기 창 정비 재입찰에서 사업권도 따냈다. 이번 계약으로 올해 3대를 정비하고 내년부터 물량을 늘릴 계획이다

항우연, 다목적 실용위성 국산화 부품 출품식 개최

한국항공우주연구소는 지난 28일 전경련 회관 20층에서 다목적 실용위성 국산화 부품 출품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정부·산·학·연 관계자 약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 위성 국산화 품목을 담당한 회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소와 TRW사의 인정서를 수여했으며, 그동안 연구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공

로패를 수여하였다.

동 연구소 장근호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서 2000년대 항공우주산업 입국을 보다 앞당기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동 연구소가 세계적인 항공우주연구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하였다.

한편 다목적 실용위성은 '99년 발사를 목표로 지난 '94년부터 부품 국산화를 위해 연구를 해왔다. 이번에 이룩한 국산화 품목은 구조 및 열제어계, 자세 제어계, 전력계, 추진계 및 원격측정 명령계 등 5개 부분체 55개 품목에 이른다.

보잉, 여객기 생산 차질 주문량 증가, 부품부족 등이 주요인

미국의 보잉사는 생산라인의 차질로 당초 예상보다 많은 수의 여객기 인도도를 늦추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보잉사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UAL)사에 몇가지 문제로 인해 여객기 인도가 오는 1999년 3/4분기말로 지연될 것을 알려왔다고 UAL사의 대변인이 밝혔다. 그는 또 이번 지연은 12대의 747, 2대의 757 그리고 4대의 767의 인도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잉사는 최근 생산지연에 따른 범칙금과 시간외 작업 그리고 증가된 생산량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인한 손실 등이 모두 26억 달러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보잉사는 지난 9월 금년에 12대의 주문량이 제시간에 인도되기 힘들 것으로 밝힌바 있으나 이후로 얼마나 많은 여객기의 인도가 지연될지, 언제부터 인도시기가 지켜질지에는 밝하지 않았다.

UAL의 대변인은 1999년의 인도지연은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정도 지연될 것으로 내다보면서 이

외의 기종, 즉 4대의 777(1998년 인도), 2대의 777(1999년 인도) 그리고 1대의 767과 2대의 757은 약속한 시간에 인도받을 수 있을 것으로 말했다. UAL은 인도지연으로 인해 계획된 항공노선의 증편 등 운항사업에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노후기의 퇴역예정시간을 늘리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보잉의 생산지연의 주 요인은 부품의 부족, 지난 18개월간 새롭게 고용된 32,000명의 교육, 그리고 갑자기 늘어난 주문량 등을 들수 있다. 그동안 보잉사는 늘어난 주문량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맥도넬 더글라스사와의 합병으로 거의 2배로 커버린 보잉사는 지난해 월 생산량이 18대에 비해 올 4월까지 43대를 기록했다.

빌 콘딧 보잉사 회장은 "이번 인도지연의 대가로 보잉사는 범칙금 지불이나 향후 항공기 주문시의 할인 혹은 이 두 가지를 모두 해당 항공사에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잉사의 주주들은 지난 2/4분기 보잉의 재정보고서의 오류 및 최근 생산차질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바 있다.